

교통 약자 배려 않는 대구 횡단보도

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율 30%뿐

신호색 안 보여 건너기 겁나
주변 보행자 움직임에 의존
대처능력 떨어져 자칫 사고
市 “내년 지능형 설치 계획”

▶ 음향신호기=시각장애인에게
횡단보도 위치나 보행 신호의
상태를 알려주는 신호기

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음향신
호기 설치율은 서울 66.1%, 세종
74.1%, 경기 43.3%, 부산 36%로 대
구보다 높았다.

대구시는 매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을
들여 시각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복
지관, 시각장애인협회, 거주지 인근 등
을 중심으로 140~150대의 음향신호기
를 설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
정이다. 특히 시각장애인의 주 근무지
인 안마원이나 임대 아파트 인근 횡단
보도에 음향신호기가 없는 경우가 많
다. 시각장애인들의 지적이다.

특히 중증의 시각장애인은 신호 색
깔을 구별할 수가 없어 음향신호기가
더욱 절실하다. 음향신호기가 없으면



대구 중구 종각네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
음향신호기. 배주현 기자

옆 보행자의 움직임을 보고 길을 건널
수밖에 없는데 혹여 다른 보행자가 신
호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횡단
을 하게 되면 시각장애인 역시 함께 무
단횡단을 할 위험도 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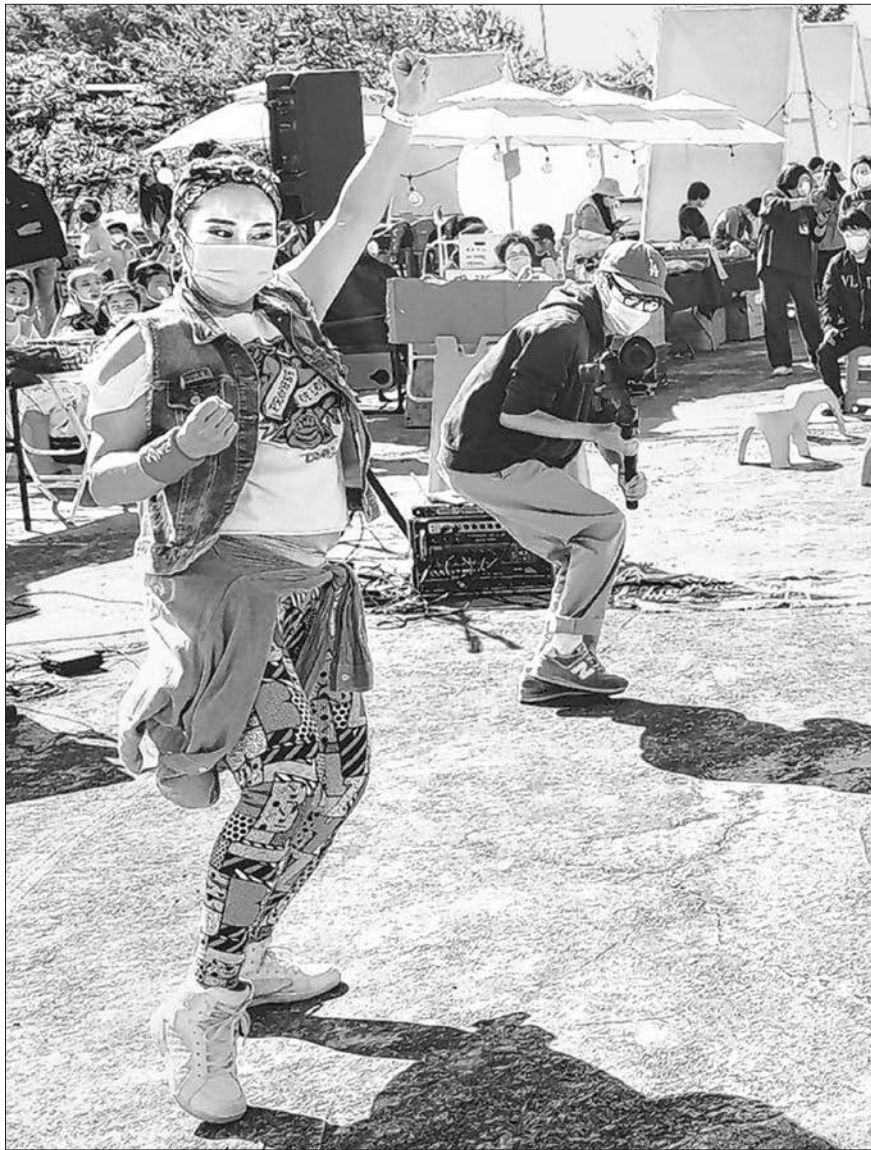
시각장애인 A씨는 “장애등급 3?4
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한낮에도 신호
등 색깔을 구별할 수가 없다”며 “음향
신호기가 없거나 아예 신호등이 없는

횡단보도에서는 주위 사람들 움직임
을 보고 건너야 해 사고 우려도 크고
비장애인도 달리 대처 능력이 떨어져
늘 불안하다”고 했다.

음향신호기가 고장 나도 바로 알 수
없이 고장난 채 방치돼 무용지물이 될
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. 실시간 모
니터링과 음향 크기 조절이 가능한 ‘지
능형 IoT(Internet of Things) 시각
장애인 음향신호기’가 대안으로 떠오
르고 있지만, 대구에 이 신호기가 설치
된 곳은 70곳에 불과하다.

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“내년에
예산 5천만원을 추가해 2억원을 들여
새 음향신호기를 150대 정도 설치할
계획”이라며 “새 음향신호기는 모두
IoT 음향신호기로 그동안의 음향신호
기 관리에서 발생한 문제·한계점을 보
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”고 했다.

배주현 기자 pearzoo@imaeil.com



도시 야생 캠프 도시야생캠프가 23~24일 양일간 대구 달성군 옛 화원운전면허
시험장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 참여 공연에 참가한 건달티처스팀
이 춤바댄스를 선보이고 있다. 성일권 기자 sungig@imaeil.com

인도 턱 너무 높아 휠체어 지나가기 불편

적정 높이 2cm 안 지킨 곳 32%
최고 10cm...낮은 곳 찾기 일쑤
민원 없으면 개보수도 안 해
“바닥 알림등 등 장치도 필요”

대구가 지난해 이동편의시설 실태
를 조사 결과 ‘도로와 인도 경계의 적
정 연석 높이(2cm)’에 부합한 곳은
68.6%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대구
의 6차로 이상 횡단보도 1천200곳을
조사한 결과여서 이보다 규모가 작은
차로의 횡단보도까지 조사를 확대하
면 적정 연석 높이 부합률은 크게 떨어
질 것이라는 게 장애인들의 얘기다.

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분동주공아파
트 부근은 연석이 높아 문제가 되는 대
표적인 장소 중 하나다. 분동주공아파
트는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을 이
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이 많이 사는 곳
이기 때문이다.

이 아파트 입주주민 노인전동차를 이
용하는 B(64) 씨는 “노인전동차를 타고
이동을 하는데 주변에 높은 연석 때문
에 횡단보도를 바로 이용하기 힘들어 연
석이 낮은 지점을 찾아 그곳을 통해 내
려가거나 올라간다”며 “이 과정에서 일
정 구간은 차도를 이용해 전동차를 물
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에 늘 노마조마하



대구 북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앞 횡단보
도 곳곳에 적정 기준치(2cm)에 부합하지
않는 연석이 보인다. 최혁규 기자

다”고 했다. 이 아파트에서 8년 넘게 경
비원 일을 하고 있는 C(72) 씨는 “몇
년 이곳에서 보행기 타고 이동하던 어르
신은 연석이 낮은 지점을 이용하기 위
해 도로에서 이동하다가 지나가던 차와
부딪치는 걸 봤다”며 “이곳엔 전동휠체
어를 탄 교통약자들이 많은데 차도로 내
려가지 않고 횡단보도 이용할 수 있도
록 연석을 낮추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
다”고 말했다.

대구시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연석

높이가 높은 대표적인 곳으로 서구 이
현시장 입구 앞 횡단보도와 대구 북구
한국로봇산업진흥원 앞 횡단보도도
언급돼 있다. 이곳의 연석 높이가 각
각 10cm, 6cm에 달했다.

두 곳을 찾아 확인한 결과, 이현시장
앞 횡단보도 연석은 2~3cm 정도 높이로
개선이 된 반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앞
횡단보도의 경우 여전히 높았다. 이에
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“횡단보도의 높
은 연석 문제는 민원이 따로 접수되거
나, 전수조사 통해 개보수한다”며 “한국
로봇산업진흥원 앞 횡단보도 연석 관련
해선 민원이 없는 등 큰 문제가 없어 보
여 개보수하지 않은 것 같다”고 했다.

장애인권단체 관계자는 “횡단보도를
설치한 뒤에 연석 높이 문제를 개선하
려면 예산도 이중으로 들고 절차도 복
잡하다”며 “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교
통 약자들을 고려해 공사하는 게 중요
하다. 또 바닥 알림등과 같은 추가 안
전 장치도 함께 설치할 필요가 있다”고
말했다. 최혁규 기자 unless@imaeil.com

김만배·남욱 또 소환 “구속영장 청구 검토”

檢, 대장동 의혹 혐의 입증 주력
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도 소환

대장동 개발 로비·특혜 의혹 사건을
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화천대유 대주
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
남욱 변호사를 다시 소환했다.
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(팀장 김
태훈 4차장검사)은 이날 오전에는 김
씨를, 오후에는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
했다.

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대장동 개
발 과정에서 사업 설계가 민간 사업자
에게 유리하게 짜인 경위, 두 사람의 역
할,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
본부장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
다는 부분 등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
려졌다.

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때 배
임 혐의를 제외하면서 추후 공범 관계
와 구제처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

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
검찰은 두 사람을 충분히 조사한 뒤
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
이다.

앞서 검찰은 김 씨를 지난 11일 소환
해 조사한 뒤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
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4일 법원
은 “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
이 큰 반면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
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”며 영장을 기
각했다.

미국에 체류하다 지난 18일 인천국제
공항에서 체포된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
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20일 0시
를 조금 넘긴 시각 석방됐다.

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황무성 초대
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참고인으로
불렀다. 황 전 사장은 최근 경기남부경
찰청 조사 당시 “대장동 개발은 유 전
본부장이 주도했고 그가 실세였다”는
취지로 취재진에 말했다. 연합뉴스

1 • 등 • 광 • 고

每日 안내

광고문의 및 접수
Tel.(053)251-1234, 080-711-2001
Fax.(053)255-7886

광고료 입금계좌
▶대구은행: 069-05-138135-001
▶농협: 703-01-341142
▶에.금주: 매일신문사

결혼정보

초·재혼 국제결혼, 결혼정보회사, 스튜디오 개인, 웨딩샵

광고문의: 251-1234

유익한 생활정보

광고문의: 251-1234

중고피아노 매입·판매

(운반·조율)

고객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39년을 지켜온 세광피아노사.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

세광피아노사
010-4802-0541
대구 중구 남산동2112-2(명덕역1번출구)

법무사 / 공인중개사 노상석

“부동산” 관련 모든 업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(부동산투자, 담보대출, 소유권 이전, 경매 등)

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78 대구지방법원 옆 문의 (053)756-7300 / 010-8674-8840

고화질 최신 CCTV

대구경북 판매1위 업체

30년 기업 영컴통신

1566-3829

행정심판, 민원 해결, 인·허가 행정사 정경훈

053-745-3377
대구지방법원 옆 / (블로그) hurbub67

양도·양수 (건설업 면허등록/양도·양수) 대강건설정보

www.dgma.co.kr
T. 010-2558-0578

매일안내 광고문의

053)251-1234
080-711-2001
每日新聞

한국결혼정보원

국제·국내, 초혼, 재혼

010-3810-3003 ★독립 메니저 초창★
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(273) 동인3가 271-128
TEL 053-424-5500 FAX 053-423-6003

국내 수리결혼정보

초혼 재혼 (초혼) 의사·교사 등 대구경북·서울 등(다수확보) (재혼) 재력가, 공직, 안정적 다수확보 홈페이지 www.zzak.com 기사/매거지모집 T. 010-4811-0690

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45(연동동101호) 대구2008-38

칠·방수

※ DPI 도색 전문 ※

노출 콘크리트 내·외부 시공 건물·주택·옥상 방수, 우레탄 방수, 회사 공장바닥 에폭시 시공, 기계도색, 폴라톤, 무늬코트, APT 내·외부공사, 실내·외 도색

샤시·판넬 시공 전문

철거·조적·설비·타일·도배 전문

성진도로 (삼화페인트 대리점)

053)552-7217, 010-3507-7216
대구 서구 내당동 297-18

30년 전통을 이어온 청구도시락

자연과 사람을 이어줍니다.

대표이사 권오섭

청 구 도 시 락 출장부대 사업부 (주) 청구푸드시스템 053)763-1009/214-8000

가발명장 1호 탄생

* 당일내 가발 티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% 환불 *

[핀, 본드 없이 편한 특허가발 셀모] 100% 인모 100%수작업 60만~120만

가발명장 천정일

80년 원구한가발 셀모가발 010-6250-3899 (국제기능대학 산업학과, 가발명장 중점)

삼소자동차 매매상사

승용차·화물차·외제차 중장비 고가매입(허가업체)

년식 2011년 이전차량(수출적극매입)

010-7330-3200 (중고차 수출상당)
010-2740-2900 (폐차, 노후경유차상당)